

가축전염병 느는데...방역관 부족 선제대응 아쉽다

도, 작년 32명 공고 2명 채용
낮은 처우에 이직률도 높아
수의직 공직자 등 확충 시급

최근 전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소 브루셀라병 등 연이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대규모 살처분과 함께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가축방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가축방역관 인력이 태부족해 방역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공중방역수의사 등이 업무에 나서고 있으나 선제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과 관련 전남지역

12곳 농가 30만 6,000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됐다.

2020~2021년에는 97호 농장 381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보상비로만 190여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소 브루셀라병의 경우 2018년 2건 11마리에서 2019년 6건 122마리, 2020년 87건 535마리, 2021년 145건 1,355마리 등 매년 증가세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전남도를 포함한 방역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방역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축사육 농가와 가축 수를 기준으로 가축방역관이 배치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낮은 응시율 등으로 인원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의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은 179명이지만 현

원은 102명 채용에 그쳐 77명이 부족한 상태다.

목포·곡성·장흥·강진·해남 등 5개 지역은 가축방역관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945만 마리에 달한다.

방역대책 수립, 예방접종 및 소독 관리·지도, GPS 단속, 방역교육과 점검 등 핵심적인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축방역관 채용을 위해 지자체들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일반직(수의7급)으로 특채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해마다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실제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일반직(수의7급) 32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율이 낮아 2명 채용에 그쳤다.

2020년에는 5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합격자는 20명에 그쳤으며 2019년에도 49명을 모집했지만 18명만 임용됐다.

가축방역관의 이직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34명(동물방역과 2명, 동물위생시험소 15명, 시·군 17명)의 가축방역관이 전남을 떠났다.

같은 기간 10명의 가축방역관이 시·군에 채용됐지만 17명이, 동물위생시험소는 21명 중 15명이 퇴직했다.

이직 사유로는 광주시·수도권 지자체로 이직, 동물병원 개업 등이 대부분이다.

전남도 한 수의직 공무원은 “수의사들이 동물병원 개업이나 병원 보다 열악한 근무조건에 소득도 적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최초 7급으로 임용돼도 다른 직렬에 비해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6급으로 정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가축방역관 대신 공중방역수의사와 행정직·축

산직 공직자가 업무에 투입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동물방역은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공중방역수의사도 지자체당 1~2명에 불과한 데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능숙도가 떨어져 가축방역관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는 가축방역관을 5급으로 승격하고, 의료활동 수당 등 처우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1998년부터 6년제 수의과대학으로 학제가 개편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과제로만 머물러 있던 수의직 공직자 확충과 처우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관이 꼭 필요하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가축방역관의 낮은 처우와 고강도 노동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전남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8일째 300명을 넘어섰다. 광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오는 24일부터 2주간 긴급 휴원에 들어가기로 한 19일 오후 남구선별진료소에서 보육교사들이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 첫 300명대 확진...어린이집·유치원 2주간 '휴원'

전남도청 공무원 1명 확진...일부 부서 폐쇄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래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명대를 돌파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긴급 휴원 조치에 들어간다.

19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356명, 전남 129명이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 13일(224명) 처음으로

200명대를 기록한 뒤 6일 만인 이날 오전 집계에서만 300명을 넘어섰다. 동구모 요양병원에서 73명(누적 263명), 광산구 요양원에서 14명(누적 14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광주시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공동체 안전을 위한 '잠시 멈춤'을 강력히 권고했다.

내용은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어

린이집·유치원 긴급 휴원 ▲2월 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특별점검 강화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 방역관리 만전 ▲설 명절 기간 이동 자제 등이다.

전남에서는 지역별로 ▲목포 43명 ▲무안 22명 ▲나주 18명 ▲순천 12명 ▲여수·영암 각 7명 ▲담양·진도 각 4명 ▲고흥 3명 ▲화순 2명 ▲광양·구례·보성·장흥·강진·해남·영광 각 1명씩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무안에서는 전남도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1명이 확진되면서 13층 사무실이 모두 폐쇄됐고, 해당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7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확진된 공무원의 부인과 자녀 3명도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오미크론 확진자의 재택치료 수용과 먹는 치료와 복용범위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감염 차단을 위한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길용현·오선우 기자

“현산·지자체 못 믿어” 울분 7면

그린수소 메카 도약 전남 '19조원' 투자

전남도가 2050 탄소중립의 마스터키 '청정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그린뉴딜 핵심 프로젝트로 역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과 연계해 국가 그린수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 10년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7대 전략과 27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9조 346억 원을 투입한다. 도내 11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역의 우수한 산업환경과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수소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수소 전용 항만터미널 구축 ▲수소차 5만 1,000대 및 수소충전소 38개소 구축 ▲2031년부터 연간 그린수소 97만 톤을 생산할 구상이다.

2025년까지 1단계 도입기에는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생산 준비에 집중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수전해기술 연구개발(R&D) 선점을 위해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e-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실증 인프라 구축 ▲그린수소 수전해 인증센터 구축 등 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2단계 정착기에는 그린수소를 대상으로 생산할 생산기지를 중점 조성할 방침이다. /길용현 기자

전남매일이 귀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는 비즈니스클럽으로 회원 여러분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좌로 당신을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을 갖춘 최고지도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부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접수기간

2021. 11 ~ 2022. 02. 18(금)

강의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

강의시간

월요일 19:00~ 20:00 (※18:00 호텔식 식사후 강의)

교육기간

2022년 3월 ~ 2022년 12월 (1년 16강 과정)

수강료

350만원 (부가세포함)

접수처

전남매일 사업국
Tel. 062) 720-1011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